

붓다뉴스 닷컴·불교만화연구소 '만화공모전'

동심으로 캐릭터·애니메이션 미래포교

11일 '마리 이야기' 개봉... '오세암' 가을쯤 선보여

연초부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를 낳는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과 기획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국내 시장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미래 산업으로서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불교계에서도 올해 불교 만화 육성과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이 잇달아 열린다.

본지의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 닷컴(buddhanews.com)이 올해 동안 상설 만화공모전을 실시한다. 불교 소재 만화와 캐릭터 산업발전을 위해 마련된 만화공모전은 붓다뉴스 홈페이지에 만화공모전 안내창과 공모참여 페이지를 상설 개방하여 각 분야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분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카툰,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등이며 붓다뉴스 닷컴의 신 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을 시디롬이나 디스켓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이달의 만화'로 선정하고, 소정의 선물도 준다.

불교만화연구소(www.okbuddha.com)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온 '불교만화공모전'은 20일 마감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열리는 제1회 불교만화공모전은 불교적 소재가 담긴 모든 장르의 만화를 장르와 권수의 제한없이 접수 심사한다.

불교계가 만화 공모전 등을 통해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에 와 있는 반면, 불교계 밖에서는 창작 캐릭터의 개발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개봉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고21에서 제작 중인 극장용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오는 가을 개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고 21은 7월 제작발표회를 갖고,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와 성인들에게까지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면서 "국내 필름 페스티벌과 해외의 필름 마켓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

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정채봉씨의 동화 <오세암>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다섯살배기 고아 소년 김순이와 알 못보는 누이 김이가 실정스님의 절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배경 속에 천진무구한 어린 소년과 스님과의 우정,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독특한 동양적 캐릭터의 이미지로 그려내게 된다.

11일 전국 75개 개봉관에서 동시 개봉된 순 한국산 애니메이션 '마리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다. 바닷가 외딴 마을에 사는 소년 남우를 주인공으로 환상의 소녀 마리와 만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단행본 출판과 캐릭터 사업 분야 등에까지 진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장편 애니메이션과 달리 짧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 않는 애니메이션)분야도 나날이

올 가을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한 장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분야는 게임과 카드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종종 스님과 목탁 등 불교적 소재를 이용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선을 보이기도 한다. 이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지난해 열거되기 이야기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 사이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이같은 열기에 힘입어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ee@buddhapa.com



김홍규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잔설이 덮인 겨울 숲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뒷산을 오른다. 찬바람에 불은 얼얼하고 가끔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정신은 활짝 깨어나고 마음은 한결 깨끗해진다. 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가끔씩 나무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무성했던 나뭇잎을 모두 떨궈버리고 햇빛은 알몸으로 찬바람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들처럼 인간도 마음의 묵은 짐을 털어 버리고 빈 마음으로 정신의 봄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이럴 땐 보들레르(1821-1867)의 시 '상응(相應, Correspondence)'이 생각난다.

자연은 살아있는 기동들의 사인
그 기동들은 이따금 알아듣지 못할 말을 건네 오네
상징의 숲을 헤쳐며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숲의 다정한 눈길은 우리를 따라오네

어둠인지 빛인지 광막한
어스름의 깊은 합일 속에

긴 메아리 멀리서 왔
아들 듯
색과 소리와 향이 서
로 응답하네 -

보들레르 '상응'

저 나무들이 전네오는 말 어떻게 들을까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징으로 가득 찬 정신적 공간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 오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식탁한 마음으로 인해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숲의 다정한 눈길'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인간은 풍경이 자아내는 색깔과 소리와 향내를 맡지 못하며, 그것들이 상응하며 만들어내는 교향악적인 '교감의 그물'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그치지 않는다.

보들레르가 파악한 숲의 언어는 사물 사이의 내밀한 관계와 만물의 조응에 관한 비밀이다. 그는 대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이런 능력을 찬양했다. 하지만 인간을 물질주의적 욕망의 노예로 몰고 가는 부르주아지 사회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고사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회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물질주의적 낙관론으로 치달던 19세기 서구사회는 인간정신의 소외를 고발하는 이 상징주의자들을 '나쁜 시인들'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들의 시집을 판매금지 시켰다. 이단자가 되어 버린 보들레르는 이렇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감이 끊어진 현상을 '아이러니'라고 불렀다. 현대사회야말로 아이러니가 판을 치는 '아이러니컬한 사회'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교감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시인의 주된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숲의 언어를 알아듣는지 가만히 반성해본다. 지금도 내 마음은 물질과 허상을 좇아 얼마나 피곤해 있는가? 머릿속은 쓰레기 같은 정보와 허깨비 같은 텔레비전 화면과 부패한 뉴스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들이 건네 오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숲 겨울은 저 나무들처럼 내 마음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학평론가

김상유 희수작품전 갤러리현대 17일부터

제2회 이종섭미술상을 수상한 원로 서양화가 김상유 화백이 희수(喜壽, 77세)를 맞아 60년대 이후 작품 100여점을 한꺼번에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를 17일-2월 15일까지 서울 사간동 갤러리현대에서 갖는다.

김화백은 절제 은둔의 생활과 달관의 미학을 담은 작품으로 미술계에서 주목 받아온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도 '무심유족(無心唯足)', '청산(靑山)', '지족가락(知足可樂)' 등의 작품을 통해 탈속과 명상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02734-6111



◇김상유작 '장막(帳幕)'

달마도와 만남전 롯데화랑 17일까지

<한국의 달마> 화첩의 저자인 선화가 김창매씨가 17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화랑에서 '달마도와 만남전'을 연다.

서역인의 이미지를 벗어난 한국적인 달마의 모습을 추구해 온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도 '책 읽는 달마' '차 마시는 달마' 등 독특한 그림의 개성이 드러난 30여점의 달마도를 선보인다.

또한 전시와 함께 11일, 15일에는 선화 김창매씨 25명에게 달마도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02726-4428



◇김창매작 '달마'

인사동에 창극 극장 생긴다

2월 1일 개관

전통문화의 거러인 인사동에 창극만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상설극장이 생긴다.

2월 1일 개관 예정인 인사아트프라자 지하 2층에 위치한 '인사동 예술극장'은 200석 규모의 창극 전용극장으로 창극 전문단체인 한국창극원대표 박종철이 임차해 1년 내내 창극만을 공연하게 된다.

2월 1일부터 월드컵 기간인 6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와 7시(화요일 휴관) 공연될 개관 기념작으로는 호색적인 사회의 처부를 풍자한 창극 '오유란'이 예정돼 있다.

단원들의 평균 연령 26세의 젊은 극단인 한국창극원은 국립극장 기획홍보실장 출신인 박종철 대표가 한국 전통문화의 활성화와 전통문화 없는 전통문화의 거러인 인사동의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만든 단체로 모두 36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한국창극원은 월드컵 기간을 맞아 중국·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인사동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된 자막을 곁들여 공연하는 동시예이 3개국어로 된 안내 팸플릿과 통역 가이드를 준비할 계획이다.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일지·윤창화 지음 | 4x6판 양장 | 320쪽 | 값 6,800원



박계사 율주 종진 큰스님 강수/박연진 옮김 | 4x6판 양장 | 216쪽 | 값 6,000원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에 가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불교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모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썼습니다
예컨대 "여성신도를 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지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등등 150가지입니다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하여
천도재와 49재를 지내는 까닭을 아십니까?